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논문

초등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체벌실태와 체벌 후 심리적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고 경 한

# 초등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체벌실태와 체벌 후 심리적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corporal punishment to  
Taekwondo athletes and their psychological changes after  
corporal punishment

2017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고 경 한

# 초등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체벌실태와 체벌 후 심리적변화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 윤 오 남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고 경 한

## 고경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철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계행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윤오성 인

201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b>I. 서 론</b>	<b>1</b>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3. 연구가설	5
4. 연구제한점	6
<b>II. 이론적 배경</b>	<b>7</b>
1. 체벌의 개념	7
2. 체벌의 종류 및 방법	12
<b>III. 연구방법</b>	<b>16</b>
1. 연구대상	16
2. 연구기간 및 절차	17
3. 조사도구	17
4. 자료처리	18
<b>IV. 연구결과</b>	<b>19</b>
1. 태권도선수들의 일반적 특성 비교분석	19

2. 태권도선수들의 체벌 후 심리적 변화분석 .....	27
V. 논의 .....	37
VI. 결론 및 제언 .....	40
참고문헌	
부록	

## 표 목차

<표 1>.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체벌의 유형 .....	13
<표 2>.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유형 .....	13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6
<표 4>. 설문지의 주요구성내용 .....	18
<표 5>. 체벌횟수 비교 .....	20
<표 6>. 체벌방법 비교 .....	21
<표 7>. 체벌 가해자 비교 .....	22
<표 8>. 체벌 형태 비교 .....	23
<표 9>. 체벌이유 비교 .....	24
<표 10>. 체벌상황 비교 .....	26
<표 11>. 심리적 변화 형태 .....	27
<표 12>. 체벌한 사람에 대한 감정 변화 .....	28
<표 13>. 신체적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	29
<표 14>. 간접적인 신체적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	30
<표 15>. 간접적인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	31
<표 16>. 언어적인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	32
<표 17>.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	33
<표 18>. 숙소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	34
<표 19>. 탈의실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	35
<표 20>. 시합경기장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	36



## ABSTRACT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corporal punishment to  
Taekwondo athletes and their psychological changes after  
corporal punishment

Ko, Kyoung-Han

Advisor : Prof. Yoon, Oh-Nam Ph.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ditions of corporal punishment which has been conventionally inflicted on athletes without clear standards as an educational means, their psychological changes after corporal punishment, and the effects of difference in awareness of necessity of corporal punishment on psychological changes of elementary Elite Taekwondo athletes and devise a method to establish and apply rational training methods for desirable educational activities and practice. Especially,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earch on the conditions of corporal punishment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period of growth can be used as helpful material for educational purpose.

This study made total 340 questionnaires and delivered to male and female Taekwondo athletes who participated in national

elementary school Taekwondo game in 2016 and total 320 responses except 20 questionnaires which were impossible in processing data were analyzed.

First, the frequency of corporal punishments to elementary elite Taekwondo athletes who were the 6th graders or had one year or more athletic career was highest as 2~3 times a month. Such a punishment was inflicted on male students by a Taekwondo coach and female students showed high indirect punishment frequency with corporal punishment. The cause of corporal punishment was recognized as only for skill improvement in both male and female athletes.

Second, on the psychological changes of Taekwondo athletes after corporal punishment, the students in the 2nd and 4th grade showed the psychological changes after corporal punishment and female students showed more psychological changes after corporal punishment than male student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corporal punishment might cause negative antipathy rather than positive effect in acquiring exercise skills and moreover it could leave a negative recognition of exercise.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차원 격상시키게 되면서 세계문화로 정착되었다(조영석, 2014).

그러나 현대사회가 다양하고 모든 분야에서 걷잡을 수 없이 급격한 속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태권도문화에서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그에 따른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사건 중에서도 체벌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써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가르침을 전제로 한 육아학대, 부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학대 및 폭력, 살인과의 같은 사회적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스포츠에 관련한 분야 중 운동선수들에게 체벌에 관련된 문제는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화이슈로 떠올릴 만큼 다양하고 획기적인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체벌에 문제에 관한 대책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체벌에 관한 교육적 가치의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도 큰 이슈가 될 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체벌에 대한 명쾌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고 학생 지도 수단인 하나로 쓰이고 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형태로 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한 방법으로 당연히 사용되고 있다(송완순, 1999).

서양에서는 고대시대부터 체벌을 학교에서는 학업과 훈육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듯 매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행동 교정 및 단련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 귀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 등의 교육의 고정관념이 존재하여 왔다 (송완순, 1999).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사상 이었던 “예”사상에도 학습심리학의 연구인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 자녀가 많으면 한두 명인 가정이 증가되면서 아동들의 과잉보호의 양육태도를 갖게 되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부와 교사들 사이에서 학생들의 인격교육 등 지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다. 그에 따른 사회적으로 미디어 노출 및 범정사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위원회에서는 2006년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사회적 인권문제의 현안으로써 국내스포츠 분야에서 인권문제에 관한 내용은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2007년에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실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16개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 및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하였다(국가위원회, 2009). 인권조례라는 이유로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고는 있지만, 스포츠 현장에서는 아직도 선수들의 체벌과 폭행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고와 개념이 민주시대에 걸맞은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선수들에게 엄격하게 체벌을 실행했던 것들이 이제는 달리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많은 변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많은 변화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는 대책이 없으므로, 선수들에게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많은 선행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2016년 야구 A감독은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부 훈련도중 야구공을 수차례 5학년인 학생 B군의 몸을 향해 던진 것으로 알려져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 조치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지만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문제를 제기하다 야구선수가 꿈인 아들이 야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많은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이 내린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훈육은 필요하지만 꿈나무인 어린아이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면서까지의 폭력수준의 체벌문화는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 건지라는 의구심을 가져보며, 비단 우리아이뿐만 아닌 여러 아이들에게 이러한 폭력문화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에 학교폭력위원회에 건의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아이를 생각하면 차후 지도자들에게 무관심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다 라고 하였다(전남일보 2016).

또한 수영대표팀 코치가 태릉선수촌에서 합숙중인 대표선수들을 구타하고 폭언을 일삼다가 퇴출되는 등, 유도부 코치가 팀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제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이 드러났다(전남일보, 2007).

이와 같은 사건을 미루어볼 때, 스포츠 현장에서는 아직도 교육의 수단인 한방법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체벌과 폭행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일부 사례에 대하여는 여론에 힘입어 형사처벌로 사회적 제제가 가해지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부분의 사례는 아직도 현장에서의 눈감고 아웅하기의 수준으로 은폐되고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체벌이 교육수단으로 왜곡되어 운동선수들에 기본적인 목표인 승리라는 목표를 두고 선수 개개인에게 심리적 억압, 정신적 억압, 정서적 불안, 신체적 긴장감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장애, 학교생활에 대한 좌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태권도지도자들의 체벌이 이루어졌을 때 초등학교 태권도선수들에게 심리적 변화가 얼마나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체벌의 장소, 도구, 정당성, 체벌부위와의 심리적인 관계, 체벌과 운동 분위기와의 관계, 체벌이 주는 학생의 심리적 변화를 분석하여 태권도 선수들이 인권이 존중되며 선수와 지도자간의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운동현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체벌실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체벌횟수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체벌방법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체벌가해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체벌형태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1-5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체벌이유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1-6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체벌상황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체벌 후 심리적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체벌 후 심리적 변화 형태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체벌 후 가해자의 감정 형태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체벌 후 마음의 변화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간접적인 신체적 체벌 후 마음의 변화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간접적인 체벌 후 마음의 변화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6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언어적인 체벌 후 마음의 변화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7 일반적 특성에 따라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체벌 후 마음의 변화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8 일반적 특성에 따라 숙소에서 체벌 후 마음의 변화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9 일반적 특성에 따라 탈의실에서 체벌 후 마음의 변화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0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시합장에서 체벌 후 마음의 변화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배경변인, 조사대상, 조사지역, 측정도구 등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 집단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따른 한계로 인하여 전 종목 초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설문지만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설문 자가 설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초등학생인 만큼 약간의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고, 또한 설문지법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 II. 이론적배경

### 1. 체벌의 개념

우리는 체벌이 어느 선까지 체벌이고, 폭력인가? 라는 의문점을 흔히 부모와 교사가 자녀의 엉덩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행위에 대해 정상적이다.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급변함에 따라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때리는 행위에 대해 부모들은 폭력이라 간주하고 교육을 하며, 또한 분위기에 따라 학생들도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폭력을 정의 하는데, 소위 “유형력(force)” 이라는 통상적인 물리적 행위와 “폭력(violence)” 이라는 비일상적이고 유해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노기호, 2008). 가령, 폭력을 통상적인 폭력(normal violence)과 학대성 폭력(abusive violence)라는 두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한다(Gelles, 1997). 최근에는 체벌에 대하여 ‘교육적 체벌’, ‘비교육적 체벌’, ‘체벌’과 ‘학대(또는 폭행)’를 구분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폭력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다 누가 또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가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당국에 법조항에서는 사회적인 통념상 근거로 실제 판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는 체벌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문화의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폭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규정짓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더, 체벌에 대한 개념사의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체벌에 대하여 규정이 있거나 합의된 체벌이라는 의미를 도출해내기가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체벌에 대한 찬반논의가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체벌에 대한 엄밀한 개념규정을 시도할 수 없

다. “체벌”에 대한 윤리적 및 개념적 논쟁에 너무 매달리면 체벌문제의 본질과 인식에 혼동만 초래하고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김은경, 1999). 체벌이란 ‘관습적인 권위관계에 있는 자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신을 보호 하에 있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로 규정한다(노정호, 2009). 여기에서 체벌규정을 위한 중심지표는 관습적인 권위관계이지, 훈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용인될 수 있는 폭력유형인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김은경, 1999). 물론 후자의 지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체벌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정은 교육의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의 수단으로 함축되고 있는 폭력성을 배제해야 한다. 체벌의 대하여 순간을 포착하는데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반드시 교육수단으로서 용인 받고 있는 폭력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동 환경에서 운동선수들이 선배, 코치, 감독 등으로부터 받는 체벌로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체벌이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로 규정한다. 이러한 체벌규정은 학대나 폭력과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를 포괄하고 있다(윤용규, 2004). 따라서 실제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체벌과 폭력, 체벌과 학대를 구분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하며 뚜렷하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교육현장에 쉽게 볼 수 있는 체벌의 상태는 신체적인 공격으로 회초리 때리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주먹으로 때리기, 아이를 거칠게 잡아 밀치는 행위 등의 벌세우기 등 물리적 접촉 없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기압 받는 형태와 같은 행위를 시행하고 있다(조영석 2014). 교육의 수단이라 여기며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여러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벌

행위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체벌이 아닌 범죄적 폭행이 되지만, 관습적인 스승과 제자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교육의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사실상 체벌은 폭력의 한 범주이다. 다만, 습관적인 권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신체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관용될 뿐이다(윤용규, 2004).

체벌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Corporal Punishment” 인데, 여기서 벌(Punishment)은 제재(Penalty)와 고통(Pain)과 같은 라틴어 어원에서 유래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체벌은 행위의 금지 습관의 파기 등을 목적으로 신체에 부여하는 불쾌한 자극이라고 하였으며 교육학 대사전에서는 “체벌은 학업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했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법을 가함으로써 격려한다든지 그 비행을 교정하는 방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남덕우, 1988).

Hyman & Wise(1979)는 체벌이란 교사나 다른 교육 직원이 금지하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위반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장옥란, 2003).

또한 체벌에 대하여 “처벌을 학생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 그 행동을 억제 또는 소멸시키기 위하여 신체적인 부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여 고통을 주는 교육적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신동로, 1988). 그리고 또 다른 선행연구자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학생에 대한 물리적인 신체적 접촉을 가하거나 벌을 세우는 등 직접적 또는 간접적 고통을 가하고, 그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에 호소하여 학업에 더욱 정진하게 한다던가, 그 비행을 교정하려는 교육 방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민영숙, 1984).

행동수정과 관련하여 “체벌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극을 주는 행동이 재발될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성진, 1998). 또한

교육개혁 위원회(1997)에서는 “체벌에는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의 종류로 나뉘어지며, 지도자의 신체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직접적인 신체를 체벌하는 것이며, 여러 유형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고통을 주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훈육을 목적으로 직접, 간접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체벌을 규정하고 있다(이수호, 2003).

또 다른 선행연구자는 징계 수단으로 체벌의 개념을 첫째,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이고 말로 차는 것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둘째,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식사시간이 되었으나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행위, 셋째, 지각을 했을 때 청소당번의 횟수를 증가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을 하는 행위, 넷째, 그 학생이나 증인을 방과 후에 심문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 다섯째, 수업시간 중 태만하거나 떠들었다고 해서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여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여섯째, 물건을 훔치거나 부숴버리는 경우 향후 그 행동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골탕을 먹이기 위하여 장시간 남겨 놓는 행위, 일곱째, 필요 이상 정신적인 불안감, 긴장감, 초조감을 주는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서남준, 1992; 윤광진 2004).

일반적으로 체벌(corporal Punishment)은 벌의 하위개념이며 벌(Punishment)은 훈육(discipline)의 하위개념이다. 훈육은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행위에 대응하여 감정과 의지를 도야하여 인격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도덕교육을 뜻하며, 훈육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상과 벌을 사용하게 된다(손인수, 1999).

훈육은 애초 교육의 수단으로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한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훈육을 곧 체벌이라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벌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혐오자극을 주면서 통제의 주축이 되는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벌은 학생이 미리 마련된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지 못했거나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부여되는 박탈 등의 부정적 자극으로서, 그 행동의 빈도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면 모두 벌로 간주 할 수 있다(지대창, 1989). 또한 심리학에서는 벌의 종류를 크게 신체벌 (physical punishment)과 심리벌 (psychological punishment)로 구분하고 있다. 체벌은 벌의 하위개념으로 학업이 부진하거나, 금지된 일을 하였을 때, 훈육의 입장에서 특정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체벌은 또한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민영숙, 1987).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체에 간접적 고통을 주는 것도 벌의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 제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도 포함한다(조영석, 2014).

체벌은 학생 선도 및 훈육을 위해 가해지는 벌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학교에서 가해지는 체벌은 바람직한 목적으로 비행을 제거 내지는 교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김진, 2001). 이성진(1998)은 체벌이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불쾌한 혐오자극을 줌으로서 그 행동이 앞으로 일어날 확률을 줄이는 방법” 이라고 하였고, 박선호(1986)는 “특정의 그릇된 행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교사에 의해서 학생의 신체에 가해지는 불쾌한 경험 혹은 신체적 고통을 말한다.”고 하였다.

## 2. 체벌의 종류 및 방법

학교 현장에서 주는 체벌은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체벌의 유형은 다양하다(구모성, 2005). 다른 아이 앞에서 종아리를 때린다거나 따귀를 갈기는 일에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꼬집는 일까지 있다. 또 다른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체벌하는 이유를 대며 교무실에서 체벌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충동적인 감정이나 보복적인 인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종류와 양을 사전에 알리고, 공개적·이성적으로 집행하고, 그 사실을 교장과 학부모에게 사실을 통고하는 방법일 것이다(노병두, 1996).

이와 같이 체벌에 대하여 또 다른 선행연구자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체벌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박상호, 1970; 문지영, 2000).

첫째, 자연 벌로서 행위 그 자체가 행위자에게 보복이 됨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물리적인 벌로서, 때린다던가하여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을 말한다.

셋째, 과업의 부광에 의한 벌로서 일정량의 작업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다.

넷째, 특권을 박탈하는 벌이다.

다섯째, 명예심에 호소하는 벌이다.

강인수(1989)는 체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 간접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체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체벌로 3가지의 체벌 유형으로 설명한다. <표 1>중심으로 코치나 감독이 스포츠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체벌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1>.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체벌의 유형

체벌의 유형	유형 내용
직접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	혹독한 작업이나 청소, 장시간의 기립 장시간이 강제 단좌, 혹독한 체력훈련
간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체벌	귀가의 장시간 보류 혹독한 질책을 하는 것 학습 현장 밖으로 격리 식사시간에 다른 벌이나 작업에 동원되는 것
정신적 고통을 주는 체벌	-따로 떼어놓기 학습이나 생활 현장에서 이탈 시켜 학생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벌 - 질책, 헐난하기 문제의 행동에 대한 훈계, 질책, 헐난으로 잘못을 꾸짖는 방법 - 늦게 귀가시키기 방과 후에 따로 남겨놓고 늦게 귀가시키는 경우

<표 2>.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유형

체벌의 유형	도구	유형내용
직접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	손, 발	뺨때리기,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 때리기, 발로차기 발로 짓밟기
	매, 운동기구	머리, 얼굴, 어깨, 엉덩이, 종아리 때리기
간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체벌	없음	깍지 끼고 옆드려뺨쳐, 투명의자, 장시간 구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체벌	없음	왕따 시키기, 장시간 개인훈련시키기 부정적 충고하기

체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신체 접촉에 의한 체벌 : 손바닥으로 뺨때리기, 뺨 꼬집기, 몸 꼬집기, 귀 잡아당기기, 군밤주기, 머리 잡아 땡기기, 주먹으로 얼굴 때리기, 주먹으로 등, 가슴, 배 때리기, 발로차기

둘째, 도구를 이용한 체벌 : 회초리로 손바닥 때리기, 때로 허벅지 때리기, 자로 손바닥 때리기, 책상위에 앉게 하여 무릎 때리기, 대나무로 허벅지 때리기, 출석부로 머리 때리기

셋째, 간접 고통을 주는 체벌: 교실 청소시키기, 벌 작업시키기, 팔 올리고 서있기, 꿇어 앉아 있기, 책상 들고 서 있기, 눈감고 서있기, 가방 들고 서있기, 늦게 귀가시키기

넷째, 기합에 의한 체벌 : 토끼 뺨뺨치기, 원산폭격, 오리걸음, 운동장돌기, 옆드려뺨치기, 팔굽혀펴기, 깎지기고 팔굽혀펴기(김명관, 1998).

또 다른 선행연구자는 체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체접촉에 의한 체벌, 도구를 이용한 체벌, 간접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첩터로 분류하고 있다(지호영, 1987).

예를 들어 아무리 학습태도와 행동자체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교실 밖인 복도나 운동장으로 격리시키는 것은 신체적 고통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체벌은 강제 분리, 장시간동안의 방치, 작업, 식사금지, 격리, 혹독한 질타 등은 학생에게 사실상의 징계에 관련되어 있는 교사들의 행위라 한다.

한편, 고개위에서는 체벌을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물리적 도구나 손 과 발등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금지해야 할 체벌 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경기도 교육청, 1999).



1) 도구 이용 체벌

- ① 대절레 자루, 빗자루, 지휘봉, 야구 방망이 등 건봉류
- ② 실내화, 혁대들 피혁류
- ③ 자, 출석부 등 학습 도구류
- ④ 기타 학교 규정으로 정하는 교편 이외의 도구

2) 손, 발로 가하는 체벌

- ① 손바닥으로 뺨, 머리가해
- ② 발로 차기, 꼬집기

3) 기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

- ① 원상 폭격, 한강철교
- ② 책상 들고 서 있기, 옆드려 뺨혀 있기, 선착순 달리기 등

4)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5) 언어폭력

- ① 인격 모욕적인 언어, 비속어, 은어
- ② 신체장애 및 성적 모독 등

신체적 상해나 인격모욕, 교사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는 폭력적 체벌은 허용되기는 어렵지만, 실제 37%나 되는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훈육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 것처럼, 매우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 1. 연구대상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명	%
성별	남자	215	67.2
	여자	105	32.8
학년	2학년	29	9.1
	3학년	29	9.1
	4학년	45	14.1
	5학년	87	27.2
	6학년	130	40.6
체벌경험 유무	있다	276	86.3
	없다	44	13.8
경력	1년 이하	123	38.4
	1년~2년	110	34.4
	2년~3년	41	12.8
	3년 이상	46	14.4
전체		320	100

## 2. 연구기간 및 절차

- 가. 연구계획 : 2016. 3. ~ 2016. 4.
- 나. 문헌연구 : 2016. 4. ~ 2016. 5.
- 다. 설문지작성 : 2016. 5. ~ 2016. 6.
- 라.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2016. 6. ~ 2016. 8
- 마. 자료처리 및 분석 : 2016. 8 ~ 2016. 9.
- 바. 논문작성 : 2016. 8. ~ 2016. 10.

연구절차는 연구대상에게 본 연구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 시 유의사항이나 설문지의 목적 및 기입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ering method)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16년 6월~8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작성이 끝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일괄 회수 하였다.

## 3.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의 항목은 “태권도 엘리트 선수들의 체별실태와 체별 후 심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중심으로”(조영석, 2014)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표 4>와 같이 설문 항목으로 작성하였다.

	문항수	문항 번호
개인 신상 및 일반적 특성	3개	1 ~ 3
체벌실태	7개	4 ~ 10
심리적 변화	10개	11 ~ 20
총	20개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6년도에 개최된 전국초등학교 태권도시합에 참가한 남·여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목적과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40부를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에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총 320부를 대상으로 자료처리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18 -

## IV. 연구 결과

### 1. 태권도선수들의 일반적 특성 비교 분석

#### 1) 체벌횟수 비교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체벌횟수 비교를 위해  $X^2$  검정 검정을 실시한 결과  $X^2 = 1.46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X^2 = 50.538(p<.000)$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학년~3학년은 고르게 분포된 반면, 4학년 이상에서는 월 2~3회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고 특히 6학년은 57%의 분포를 보였다. 경력에 따른 차이에서도 1년 이하는 고르게 분포된 반면 1년 이상부터는 월 2~3회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X^2 = 55.138(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년과 경력에 따라 체벌횟수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5>. 체벌횟수 비교

		거의 매일	주4~5회	주1~2회	월2~3회	월1회 이하	전체	X <sup>2</sup> (p)
성별	남	13	7	44	82	40	186	1.465
		7.0%	3.8%	23.7%	44.1%	21.5%	100.0%	
	여	5	6	19	40	20	90	
		5.6%	6.7%	21.1%	44.4%	22.2%	100.0%	
학년	2학년	4	0	5	3	6	18	50.538***
		22.2%	.0%	27.8%	16.7%	33.3%	100.0%	
	3학년	3	5	8	6	3	25	
		12.0%	20.0%	32.0%	24.0%	12.0%	100.0%	
	4학년	5	2	10	15	5	37	
		13.5%	5.4%	27.0%	40.5%	13.5%	100.0%	
	5학년	2	5	19	30	22	78	
		2.6%	6.4%	24.4%	38.5%	28.2%	100.0%	
	6학년	4	1	21	68	24	118	
		3.4%	.8%	17.8%	57.6%	20.3%	100.0%	
경력	1년 이하	14	10	23	24	28	99	52.102***
		14.1%	10.1%	23.2%	24.2%	28.3%	100.0%	
	1~2년	4	2	27	51	14	98	
		4.1%	2.0%	27.6%	52.0%	14.3%	100.0%	
	2년~3년	0	0	9	16	10	35	
		.0%	.0%	25.7%	45.7%	28.6%	100.0%	
	3년 이상	0	1	4	31	8	44	
		.0%	2.3%	9.1%	70.5%	18.2%	100.0%	
전체		18	13	63	122	60	276	
		6.5%	4.7%	22.8%	44.2%	21.7%	100.0%	

\*\*p<.01

## 2) 체별방법 비교

<표 6>. 체별방법 비교

		신체를 가하는 직접적인 고통	간접적인 신체 체별	간접적인 체별	언어폭력	전체	$\chi^2(p)$
성별	남	72	90	17	7	186	12.721**
		38.7%	48.4%	9.1%	3.8%	100.0%	
	여	29	38	22	1	90	
		32.2%	42.2%	24.4%	1.1%	100.0%	
학년	2학년	8	3	7	0	18	31.444***
		44.4%	16.7%	38.9%	.0%	100.0%	
	3학년	11	10	2	2	25	
		44.0%	40.0%	8.0%	8.0%	100.0%	
	4학년	21	14	0	2	37	
		56.8%	37.8%	.0%	5.4%	100.0%	
	5학년	26	36	14	2	78	
		33.3%	46.2%	17.9%	2.6%	100.0%	
	6학년	35	65	16	2	118	
		29.7%	55.1%	13.6%	1.7%	100.0%	
경력	1년 이하	44	34	18	3	99	17.767*
		44.4%	34.3%	18.2%	3.0%	100.0%	
	1~2년	31	48	14	5	98	
		31.6%	49.0%	14.3%	5.1%	100.0%	
	2~3년	13	17	5	0	35	
		37.1%	48.6%	14.3%	.0%	100.0%	
	3년 이상	13	29	2	0	44	
		29.5%	65.9%	4.5%	.0%	100.0%	
전체		101	128	39	8	276	
		36.6%	46.4%	14.1%	2.9%	100.0%	

\* $p < .05$ , \*\*\* $p < .0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체별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 12.72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는 신체를 가하는 등의 신체적 체별이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여자는 신체적 체별과 함께 간접적인 체별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X^2 = 31.444(p<.05)$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는 직접적인 체벌빈도가 높았고 5학년과 6학년에서는 간접적인 신체체벌 빈도가 높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는  $X^2 = 17.767(p<.05)$ 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접적인 체벌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간접적인 체벌빈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과 학년, 경력에 따라 체벌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3) 체벌 가해자 비교

<표 7>. 체벌 가해자 비교

		감독	코치	주장	선배	전체	$\chi^2(p)$
성 별	남	17	147	12	10	186	5.381
		9.1%	79.0%	6.5%	5.4%	100.0%	
	여	5	81	2	2	90	
		5.6%	90.0%	2.2%	2.2%	100.0%	
학 년	2학년	4	10	3	1	18	58.793***
		22.2%	55.6%	16.7%	5.6%	100.0%	
	3학년	4	15	6	0	25	
		16.0%	60.0%	24.0%	.0%	100.0%	
	4학년	4	29	3	1	37	
		10.8%	78.4%	8.1%	2.7%	100.0%	
	5학년	5	62	2	9	78	
		6.4%	79.5%	2.6%	11.5%	100.0%	
	6학년	5	112	0	1	118	
		4.2%	94.9%	.0%	.8%	100.0%	
경 력	1년 이하	12	75	8	4	99	13.195
		12.1%	75.8%	8.1%	4.0%	100.0%	
	1~2년	7	79	6	6	98	
		7.1%	80.6%	6.1%	6.1%	100.0%	
	2년~3년	1	33	0	1	35	
		2.9%	94.3%	.0%	2.9%	100.0%	
	3년 이상	2	41	0	1	44	
		4.5%	93.2%	.0%	2.3%	100.0%	
전 체		22	228	14	12	276	
		8.0%	82.6%	5.1%	4.3%	100.0%	

\*\*\*p<.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체벌가해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  검정 검정을 실시한 결과  $X^2 = 5.381(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X^2 = 58.793(p<.05)$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코치의 체벌빈도는 학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감독 및 주장의 체벌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체벌가해자는 차이는  $X^2 = 13.1953(p>.05)$ 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년에 따라 체벌가해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4) 체벌 형태(개인.단체)

<표 8>. 체벌 형태 비교

		개인적으로	단체로	전체	$\chi^2(p)$
성별	남	39	147	186	5.819*
		21.0%	79.0%	100.0%	
	여	31	59	90	
		34.4%	65.6%	100.0%	
학년	2학년	2	16	18	7.485
		11.1%	88.9%	100.0%	
	3학년	10	15	25	
		40.0%	60.0%	100.0%	
	4학년	12	25	37	
		32.4%	67.6%	100.0%	
	5학년	22	56	78	
		28.2%	71.8%	100.0%	
	6학년	24	94	118	
		20.3%	79.7%	100.0%	
경력	1년 이하	24	75	99	7.475
		24.2%	75.8%	100.0%	
	1~2년	25	73	98	
		25.5%	74.5%	100.0%	
	2년~3년	10	25	35	
		28.6%	71.4%	100.0%	
	3년 이상	11	33	44	
		25.0%	75.0%	100.0%	
전체		70	206	276	
		25.4%	74.6%	100.0%	

\* $p<.05$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체벌 형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  검정 검정을 실시한 결과  $X^2 = 5.819(p<.05)$ 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으며, 여자가 개인적으로 체벌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X^2 = 7.485(p<.05)$ 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에서도  $X^2 = 7.475(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체벌 형태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5) 체벌 이유

<표 9>. 체벌이유 비교

		성적 높이기	인성 교육	실력향상	단체규칙 및 질서유지	전체	x <sup>2</sup> (p)
성별	남	18	47	87	34	186	3.682
		9.7%	25.3%	46.8%	18.3%	100.0%	
	여	9	32	33	16	90	
		10.0%	35.6%	36.7%	17.8%	100.0%	
학년	2학년	7	4	5	2	18	21.437*
		38.9%	22.2%	27.8%	11.1%	100.0%	
	3학년	2	7	13	3	25	
		8.0%	28.0%	52.0%	12.0%	100.0%	
	4학년	0	12	21	4	37	
		.0%	32.4%	56.8%	10.8%	100.0%	
	5학년	9	20	31	18	78	
		11.5%	25.6%	39.7%	23.1%	100.0%	
	6학년	9	36	50	23	118	
		7.6%	30.5%	42.4%	19.5%	100.0%	
경력	1년 이하	16	22	46	15	99	21.999**
		16.2%	22.2%	46.5%	15.2%	100.0%	
	1~2년	6	32	43	17	98	
		6.1%	32.7%	43.9%	17.3%	100.0%	
	2년~3년	3	11	8	13	35	
		8.6%	31.4%	22.9%	37.1%	100.0%	
	3년 이상	2	14	23	5	44	
		4.5%	31.8%	52.3%	11.4%	100.0%	
전체		27	79	120	50	276	
		9.8%	28.6%	43.5%	18.1%	100.0%	

\*p<.05, \*\*p<.0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체벌 이유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  검정 검정을 실시한 결과  $X^2 = 3.682(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는 실력향상이 가장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 실력향상과 인성교육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X^2 = 21.437(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2학년은 성적높이기와 실력향상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3학년과 4학년, 5학년, 6학년은 실력향상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경력에 따른 차이는  $X^2 = 21.999(p<.05)$ 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2년~3년은 단체규칙 및 질서유지가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3년 이상과 1년 이하는 실력향상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학년과 경력에 따라 체벌이유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6) 체별 상황

<표 10>. 체별상황 비교

		시설관리 부족	훈련 부족	기술부족	생활태도 불량	지도이행 부족	전체	$\chi^2(p)$
성 별	남	19	98	19	38	12	186	6.494
		10.2%	52.7%	10.2%	20.4%	6.5%	100.0%	
	여	4	60	6	17	3	90	
		4.4%	66.7%	6.7%	18.9%	3.3%	100.0%	
학 년	2학년	1	8	3	5	1	18	18.322
		5.6%	44.4%	16.7%	27.8%	5.6%	100.0%	
	3학년	4	11	3	4	3	25	
		16.0%	44.0%	12.0%	16.0%	12.0%	100.0%	
	4학년	2	30	1	3	1	37	
		5.4%	81.1%	2.7%	8.1%	2.7%	100.0%	
	5학년	8	41	7	19	3	78	
		10.3%	52.6%	9.0%	24.4%	3.8%	100.0%	
경 력	1년 이하	8	68	11	24	7	118	16.121
		6.8%	57.6%	9.3%	20.3%	5.9%	100.0%	
	1~2년	12	57	8	16	6	99	
		12.1%	57.6%	8.1%	16.2%	6.1%	100.0%	
	2~3년	3	56	6	26	7	98	
		3.1%	57.1%	6.1%	26.5%	7.1%	100.0%	
	3년 이상	3	21	3	7	1	35	
		8.6%	60.0%	8.6%	20.0%	2.9%	100.0%	
전체		5	24	8	6	1	44	
		11.4%	54.5%	18.2%	13.6%	2.3%	100.0%	
전체		23	158	25	55	15	276	
		8.3%	57.2%	9.1%	19.9%	5.4%	100.0%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체별 상황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 6.494(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chi^2 = 18.322(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에서도  $\chi^2 = 16.121(p>.05)$ 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과 학년, 경력에 따라 체별상황에 차이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 2. 태권도 선수들의 체별 후 심리적 변화 분석

### 1) 심리적 변화 형태

<표 11>. 심리적 변화 형태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성별	남(n=186)	1.76	.82	-.826	.410	
	여(n=90)	1.85	.95			
학년	2학년(n=18)	1.77	1.16	.802	.525	
	3학년(n=25)	1.64	.95			
	4학년(n=37)	1.94	.84			
	5학년(n=78)	1.87	.90			
	6학년(n=118)	1.72	.78			
경력	1년 이하(n=99)	1.84	1.02	.892	.446	
	1~2년(n=98)	1.68	.74			
	2년~3년(n=35)	1.91	.85			
	3년 이상(n=44)	1.81	.75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심리적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t=-.826(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년에서도  $F=.802(p>.05)$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에서는  $F=.892(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과 학년, 경력에 따라 체별 후 심리적 변화에 차이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 2) 체별한 사람에 대한 감정 변화

<표 12>. 체별한 사람에 대한 감정 변화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성별	남	2.71	.69	-2.091	.037	남자<여자
	여	2.90	.67			
학년	2학년	2.66	.90	2.018	.092	
	3학년	2.72	.73			
	4학년	3.00	.57			
	5학년	2.64	.73			
	6학년	2.82	.63			
경력	1년 이하	2.64	.84	4.836	.003	1~2년>3년 이상
	1~2년	2.95	.51			
	2년~3년	2.85	.69			
	3년 이상	2.59	.54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체별한 사람에 대한 감정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t=-2.091(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학년에는  $F=2.018(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에서는  $F=4.836(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2년이 3년 이상보다 높았다. 따라서 성별과 경력에 따라 체별한 사람에 대한 감정변화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3) 신체적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표 13>. 신체적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성별	남	2.66	.87	.984	.326	
	여	2.55	.75			
학년	2학년	2.11	.96	2.632	.035	2학년<6학년
	3학년	2.52	.87			
	4학년	2.64	1.03			
	5학년	2.57	.87			
	6학년	2.75	.67			
경력	1년 이하	2.44	.97	3.196	.024	1년 이하<3년 이상
	1~2년	2.73	.66			
	2~3년	2.57	.77			
	3년 이상	2.84	.83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t=.984(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서는  $F=2.632(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2학년보다 6학년이 높았다. 경력에서는  $F=3.196(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2년이 3년 이상보다 낮았다. 따라서 학년과 경력에 따라 신체적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4) 간접적인 신체적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표 14>. 간접적인 신체적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성별	남	2.53	.81	-1.041	.299	
	여	2.64	.75			
학년	2학년	2.22	.94	4.060	.003	2학년<4학년 2학년<6학년
	3학년	2.28	.93			
	4학년	2.81	.96			
	5학년	2.43	.79			
	6학년	2.70	.63			
경력	1년 이하	2.45	.92	1.345	.260	
	1~2년	2.64	.74			
	2~3년	2.71	.62			
	3년 이상	2.56	.69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간접적인 신체적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t=-1.041(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는  $F=4.060(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2학년보다 6학년과 4학년이 높았다. 경력에서는  $F=1.345(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년에 따라 간접적인 신체적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5) 간접적인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표 15>. 간접적인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성별	남	3.04	1.04	3.250	.001	남<여
	여	2.62	.97			
학년	2학년	2.77	.80	1.077	.368	
	3학년	2.56	1.00			
	4학년	2.83	1.25			
	5학년	2.94	1.09			
	6학년	3.00	.96			
경력	1년 이하	2.88	1.07	1.283	.281	
	1~2년	2.78	1.05			
	2~3년	3.05	1.02			
	3년 이상	3.11	.89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간접적인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t=3.250(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학년에서는  $F=1.077(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에서는  $F=1.283(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간접적인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6) 언어적인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표 16>. 언어적인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성별	남	2.74	.92	.685	.495	
	여	2.65	1.09			
학년	2학년	2.33	1.37	2.976	.020	2학년<4학년 2학년<6학년
	3학년	2.44	.96			
	4학년	2.83	1.11			
	5학년	2.55	.90			
	6학년	2.89	.88			
경력	1년 이하	2.48	1.10	2.972	.032	1년 이하<2년~3년
	1~2년	2.85	.87			
	2~3년	2.88	1.07			
	3년 이상	2.77	.71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언어적인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t=.685(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서는  $F=2.976(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2학년보다 6학년과 4학년이 높았다. 경력에서는  $F=2.972(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2년~3년이 1년 이하보다 높았다. 따라서 학년과 경력에 따라 언어적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7)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표 17>.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성별	남	2.46	.78	-.753	.452	
	여	2.54	.80			
학년	2학년	2.00	.84	2.997	.019	2학년<4학년
	3학년	2.32	1.10			
	4학년	2.67	.94			
	5학년	2.44	.81			
	6학년	2.57	.59			
경력	1년 이하	2.35	.97	1.767	.154	
	1~2년	2.59	.60			
	2~3년	2.48	.81			
	3년 이상	2.59	.65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t=-.753(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는  $F=2.997(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2학년보다 4학년이 높았다. 경력에서는  $F=1.767(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년에 따라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8) 숙소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표 18>. 숙소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성별	남	2.84	.92	.771	.441	
	여	2.75	.98			
학년	2학년	2.66	.97	.883	.475	
	3학년	2.64	.99			
	4학년	2.81	1.12			
	5학년	2.74	.98			
	6학년	2.93	.84			
경력	1년 이하	2.71	1.09	.722	.539	
	1~2년	2.83	.88			
	2~3년	2.94	.80			
	3년 이상	2.90	.83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숙소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t=-.771(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는  $F=.881(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에서는  $F=.772(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 학년, 경력에 따라 숙소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에 차이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 9) 탈의실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표 19>. 탈의실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성별	남	2.88	.96	-.225	.820	
	여	2.91	1.08			
학년	2학년	2.33	1.02	2.875	.023	2학년 < 6학년
	3학년	2.56	1.00			
	4학년	3.00	1.22			
	5학년	2.85	.89			
	6학년	3.03	.96			
경력	1년 이하	2.65	1.15	3.218	.023	1년 이하 < 2년~3년
	1~2년	2.97	.90			
	2~3년	3.17	.95			
	3년 이상	3.00	.77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탈의실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t=-.225(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서는  $F=2.875(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2학년보다 6학년이 낮았다. 경력에서는  $F=3.218(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년 이하보다 2년~3년이 높았다. 따라서 학년과 경력에 따라 탈의실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10) 시합경기장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표 20>. 시합경기장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성별	남	2.59	1.05	-.565	.573	
	여	2.66	.99			
학년	2학년	1.94	.93	3.902	.004	2학년 < 6학년
	3학년	2.32	1.10			
	4학년	2.59	1.23			
	5학년	2.55	1.07			
	6학년	2.83	.88			
경력	1년 이하	2.50	1.24	.639	.590	
	1~2년	2.65	.85			
	2년~3년	2.68	.96			
	3년 이상	2.72	.94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시합경기장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t=-.565(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서는  $F=3.902(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2학년보다 6학년이 낮았다. 경력에서는  $F=.639(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년에 따라 시합경기장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V. 논 의

본 연구는 태권도지도자들의 체벌이 이루어졌을 때 초등학교 태권도선수들에게 심리적 변화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체벌의 장소, 도구, 정당성, 체벌부위와의 심리적인 관계, 체벌과 운동분위기와의 관계, 체벌이 주는 학생의 심리적 변화를 분석하여 태권도 선수들이 인권이 존중되며 선수와 지도자간의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운동현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첫째, 체벌실태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체벌횟수에 있어서 성별, 학년별, 체벌경험유무,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체벌경험에 대해 학년에 따라 골고루 월2-3회 높은 빈도를 보였고, 특히 6학년은 57%이상의 분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체벌에 대해 모두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함경혜(1997), 오성기(1998), 송기성(2001)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체벌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오늘날까지도 과거와 변함없이 체벌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벌방법에서는 남학생들은 신체적으로 가하는 체벌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여학생들은 신체적으로 가하는 체벌과 간접적인 체벌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학년(2-4학년)은 직접적인 체벌빈도가 높았으면 고학년(5-6)은 직접적인 신체체벌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과 경력에

따라 체벌방법에는 차이가 있긴 하나, 조영석(2014) 태권도 엘리트선수들의 체벌실태와 체벌 후 심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결과와 저학년 경력이 낮은 학생들과의 체벌실태는 상이하다고 지지할 수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력이 많은 학생들과의 체벌실태는 본연구의 결과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보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과의 대상의 차이로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체벌가해자는 코치의 체벌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영석(2014) 남자고등학생들의 신체를 통해 체벌 가해하는 자는 코치라고 하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영석(2014)의 결과에서 여학생들은 선배를 통해 체벌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감독이나 선배를 통한 체벌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이제는 선후배로서의 위계질서라는 이유로 훈련이 끝난 후 은밀하게 자행되어 왔던 폭행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벌형태는 여자들이 개인적으로 체벌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냈다.

체벌하는 이유는 남학생들은 실력향상이라는 이유로, 여학생들은 실력향상과 인성교육이라는 명목아래 체벌이 이루어졌다. 경력에 따라서는 적절한 운동경력은 단체규칙 및 질서유지라는 명목아래 체벌이 이루어졌지만, 경력이 **3년이상거나** 1년 이하는 실력향상이라는 이유로 체벌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체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력향상이라는 이유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벌들은 체벌이 교육적인 수단으로 되게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서 느끼는 수치감, 모욕감, 억압감 등은 향후 초등학생들이 더 성장해 나갔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각 지도자들은 체벌에 대하여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체벌 후 심리적 변화

체벌 후 심리적 변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체벌 후 심리적으로 감정 변화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체벌 후 오히려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싫었다라든지 코치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상승되며 매우 싫어졌다고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조영석(2014)의 결과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간접적인 신체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는 학년이 높을수록 또는 경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간접적인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는 4학년과 6학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4학년이 6학년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언어적인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4학년과, 6학년, 2-3년의 경력을 가진 학생들이 언어적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장소에 따른 즉 체벌 후 심리적 변화는 체벌의 장소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탈의실, 시합장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이 장소모두 2-4학년이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선행연구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대부분 체벌을 하는 장소는 훈련하는 곳 및 시합장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경력이 많은 학생들보다는 적당한 경력과, 또한 학년에서도 2-4학년이 청소년기의 과도기를, 체벌 후 심리적변화가 많이 생겨남을 알 수 있었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교육의 수단으로 뚜렷한 기준 없이 운동선수들에게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체벌실태파악과 체벌 후 심리적 변화를 알아보고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바람직한 교육활동 및 실천을 위한 합리적인 훈련방법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벌의 실태를 연구한 이유는 체육계의 발전에 있어서 더욱더 교육계의 활용방안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16년도에 개최된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시합에 참가한 남·여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는 총 340부를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에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총 320부를 대상으로 자료 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체벌실태와 체벌 후 심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체벌은 6학년 또는 운동을 1년이 상했을 경우 월 2-3회 체벌을 받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벌은 주로 태권도 코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체벌은 남학생들은 주로 신체적 체벌이 이루어고 있으며, 여학생들은 신체적 체벌과 동시에 간접적인 체벌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벌을 받는 이유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체적으로 실력향상이라는 이유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태권도선수들의 체벌 후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는 2-4학년 학생들이 주로 체벌 후 심리적인 변화가 생겼으며, 또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체벌 후 마음의 변화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체벌 후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운동기능을 습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칫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겨질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체벌실태와 체벌 후 심리적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시작하였다. 본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2016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중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체종목 초등학교 선수들을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이 겪고 있는 체벌실태 및 체벌인식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파악하여, 선수들이 올바른 운동생활에 적응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처후 개선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으로서 설문지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해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었으며, 설문지법이 갖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에 참여할 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와 체별과 심리적 변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식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학의 연구에서는 설문지기법에 그쳤으나, 좀 더 다각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개개인의 interview와 같은 기법이 같이 이루어졌을 경우 선수들이 가해지는 체별뿐만 아니라 언어외의 또 다른 체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별들이 운동선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더욱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인수(1989). 교육연구법, 서울 :문음사
- 구모성(2005). 중·고교 운동선수의 체벌 실태와 필요성 지각,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국가위원회(2009).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국가인권위원회.
- 김명관(1998). 초등학교에서의 체벌실태와 교사·학부모의 체벌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상재(2000). 교사·학생·학부모의 학생체벌에 대한 인식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1999).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총서, 99-01.
- 김진(2001). 교사와 학생간의 체벌인식에 관한연구 : 전남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홍(2013). 노인의 교회활동 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준용(2006). 청소년 씨름선수의 언어적 처벌 특성과 인지·정서적 반응,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덕우(1988). 교육학대사전
- 노기호(2008).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조성의무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원광법학 제 24권 제3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노병두(1996). 학생체벌의 성립근거와 적정범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노정호(2009). 태권도 지도자의 지도유형이 수련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민영숙(1987). 체벌의 수용도가 중학생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새교육
- 문지영(2000). 초등학교의 체벌규정 및 교사의 인식에 관한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호(1970). 상과 벌의 교육적의의, 새교육, 제 193호, 대학교육연합회.
- 박선호(1986). 교사의 체벌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정혜(2004). 체벌의 대안으로서 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남준(1992). 체벌에 대한 교사, 학부모 및 아동의 지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기성(2001).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운영 여부에 따른 체육목표 인식도 차이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완순(1999). 초등학교에서의 체벌 실태와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 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손인수(1999). 교육적 체벌이 필요한 이유, 새교육, P66
- 신동로(1988). 교육과정과 학습요건, 전북대학교 교육연구원.
- 심창희(2002). 고등학생의 체벌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기(1998). 스포츠 지도자의 체벌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외대논총, 18.
- 오성기(1998). 운동선수의 체벌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외대 논총, 19.
- 이성진(1998). 학교에서 행동수정, 서울 ; 배영사
- 이수호(2003). 초등학교의 체벌 규정에 대한 교사의 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광진(2004). 체벌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간 인식차이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용규(2004). 교원의 학생체벌에 대한 형법적 고찰, 형법연구, 제 21호 한국형사법학회, 여름 130면
- 장옥란(2003). 교사의 체벌의 법적 근거 및 교육적 한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청구.
- 지대창(1989). 교사의 자아개념과 체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영석(2014). 태권도 엘리트선수들의 체벌 실태와 체벌 후 심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호영(1987). 중학교에서의 체벌의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천옥희(2004). 초등교사의 체벌규정 인지도 및 적용실태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봉철(2006). 중학교 운동선수들의 체벌경험과 인식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정혜(1997).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활동 및 체벌실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 36권, 제4호, 143-162.
-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59782000493924004>”
- Gelles(1997).
- Hyman & Wise(1979) Corporal Punishment In American Education, Philadelphia : Temple Univ. press

## 부록

# 설문지

###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체벌실태와 체벌 후 심리적 변화에 관한 설문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연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체벌실태를 파악하여 체벌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평소 감독, 코치 선생님들로부터 받는 체벌에 대한 실태와 심리적 변화를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016년 7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고경한



다음은 경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질문입니다.

1. 학생은 운동하는 동안 전국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습니까?

① 입상경력이 있다.

② 입상경력이 없다.

다음 설문은 학생여러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읽으시고 해당란에 V로 체크하여 주세요.

2. 성별 : 남자: \_\_\_\_\_ 여자 : \_\_\_\_\_

3. 학교 : 초등학교 \_\_\_\_\_ 학년

4. 전국대회출전경력 :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 ~ 3년 ④ 3년 이상

**체벌이란,**

체벌의 유형	도구	유형내용
신체적 체벌	매, 운동기구	손바닥 맞기, 종아리 맞기 등
간접적인 신체체벌	없음	엎드려뺨쳐, 장시간구보, 꼬집기 등
<b>간접적</b> 체벌	없음	청소시키기, 벽보고 서있기 등
언어폭력	없음	친구들 앞에서 망신주기, 비난하기, 부정적으로 말하기 등

위의 내용에 관련된 사항이 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벌에 관련되는 내용을 읽고 답하여 주세요.

1. 운동하면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없다

2. 체벌의 횟수는?( )

- ① 거의 매일                      ② 주 4~5회 정도                      ③ 주 1~2회 정도  
④ 한 달에 2-3번                      ⑤ 한 달에 1번 이하

3. 체벌을 주로 받는 장소는?( )

- ① 운동장이나 체육관                      ② 숙소                      ③ 탈의실                      ④ 시합 경기장

4. 체벌을 가하는 방법은?( )

- ① 신체를 가하는 직접적인 고통(도구를 이용한 체벌)  
② 간접적인 신체체벌(엎드려 뺨쳐, 장시간구보, 꼬집기 등)  
③ 간접적인 체벌(청소시키기, 벽보고 서있기 등)  
④ 언어폭력(친구들 앞에서 망신주기, 비난하기, 부정적으로 말하기 등)

5. 체벌을 주로 가하는 사람은?( )

- ① 감독                      ② 코치                      ③ 주장                      ④ 선배

6. 체벌을 받는 방법은?( )

- ① 개인적으로                      ② 단체로

7. 감독 및 코치선생님께서 왜 체벌을 하는가?( )

- ① 메달을 따기 위해서                      ②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③ 실력 향상을 위해                      ④ 운동부 규칙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⑤ 개인적인 감정을 풀기위해(감독이나 코치선생님이 화가 나있어서)

8. 여러분은 주로 어떤 경우에 체벌을 받게 됩니까?( )

- ① 훈련장 및 운동장비 관리를 못했을 때                      ② 훈련을 열심히 안할 때  
③ 발차기 기술이 부족할 때                      ④생활 태도가 불량할 때  
⑤ 시합에 지거나 코치선생님이 시키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다음 설문은 심리적 변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읽으시고 해당란에 ( )안에 번호를 쓰시오.

9. 체벌을 받은 후 여러분의 심리적 변화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

- ① 반성을 매우 많이 하게 됐다 ② 반성을 조금 하게 됐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반항심이 생겼다. ⑤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반항심이 매우 생겼다.

10. 체벌을 받은 후 체벌한 사람에 대한 감정은?( )

- ① 체벌한 사람이 매우 좋아졌다 ② 체벌한 사람이 좋아졌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체벌한 사람이 싫어졌다 ⑤ 체벌한 사람이 매우 싫어졌다

※ 체벌 받은 후 마음의 변화가 가장 많이 생기는 체벌 종류는?

11. 신체적 체벌(도구를 이용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가..( )

- ① 매우 많이 생겼다 ② 많이 생겼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생기지 않았다 ⑤ 전혀 생기지 않았다

12. 간접적인 신체 체벌(엎드려뺨쳐, 장시간 구보 등)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가..( )

- ① 매우 많이 생겼다 ② 많이 생겼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생기지 않았다 ⑤ 전혀 생기지 않았다

13. 간접적 체벌(청소시키기, 벽보고 서있기)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가..( )

- ① 매우 많이 생겼다 ② 많이 생겼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생기지 않았다 ⑤ 전혀 생기지 않았다

14. 언어폭력(친구들 앞에서 망신주기, 비난하기, 부정적으로 말하기)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가..( )

- ① 매우 많이 생겼다 ② 많이 생겼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생기지 않았다 ⑤ 전혀 생기지 않았다

※ 체벌 받은 후 마음의 변화가 가장 많이 생기는 체벌 장소는?

15.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가.. ( )

① 매우 많이 생겼다 ② 많이 생겼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생기지 않았다 ⑤ 전혀 생기지 않았다

16. 숙소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가 .. ( )

① 매우 많이 생겼다 ② 많이 생겼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생기지 않았다 ⑤ 전혀 생기지 않았다

17. 탈의실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가 .. ( )

① 매우 많이 생겼다 ② 많이 생겼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생기지 않았다 ⑤ 전혀 생기지 않았다

18. 시합 경기장에서 체벌을 받은 후 마음의 변화가 .. ( )

① 매우 많이 생겼다 ② 많이 생겼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생기지 않았다 ⑤ 전혀 생기지 않았다